

**박근혜 대통령님 · 김관진 국방장관님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님!**  
**“군대내의 동성애 · 성추행사건으로 불안해서 아들을 군대에 못 보내겠습니다!”**

●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장교, 사병, 부사관, 사관생도)이 항문성교나 성추행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이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비례 대표-대표 발의) 김광진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이하 같은 당) 김제연(통진당 비례 대표)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정의당 비례 대표) 이상규(통진당 관악구을)의원 등이 이 법을 폐지하자고 국회에 ‘입법발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게 되며, 국가의 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1. 저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온갖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17명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경악스런 군대내 성추행 사건도 알고 계십니까?**

2014년 3월 14일 대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17명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동성애자 분대장에 대해 1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은 ‘칠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 보낸 아들이 선임병에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국방의 의무와 무관한 선임병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금쪽같은 아들을 어찌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구의 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당한 병사의 누나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 집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가해자가 동성애였기 때문에 감형사유가 된다니요?

**채하나**  
 3월 14일 오후 11:39 · 🌐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고있는 22살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동생이 군복무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분대장이 영창에 갔는데 그피해자 중에 제 동생도 포함된다고...처음 그얘기를 듣는순간 아무생각도 안들더군요... 제 동생 말후임은 구강성교까지 당했구요... 이같은 짓을 한 사람 가해자의 이름은 몰리지 않겠습니다... 처음 성추행 당한 애들은 14명이라 들었지만 현병대의 조사 후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령부 대대장님께선 저희에게 선처는 하지않겠다 말씀해주셨구요...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5명이 합의를 한 상황이라군요.  
 하지만 더 억울한 일은 ... 주민문들께서 써주신 370여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니다. 과연 경산주민문을 계선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고 써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경악하시는 분들도 있을테죠... 더군다나 변호사는 동성애자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더군다나 동성애자들... 물론 국방부는 몰랐겠죠.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려하는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370여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을 줄이려고하는 가해자와 그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어렸을때 착했다한들 지금 벌어진일이 없던일처럼 되지않습니다...  
 과연 판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그런일을 당했어도 이정도의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저와 저의가족.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제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구강성교까지 당한 아이는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네요...제발 이 이야기 퍼뜨려주세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자작극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제이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동성애자가 군대내에서 성욕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권)가 동성애자의 성폭력/성추행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 다수 병사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인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군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범위한 성폭행 · 성추행의 실태는 대통령 · 국가인권위원회 · 국방부의 책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국방부에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의 명칭을 <병영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군대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에 “군형제 제92조가 군대 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군대내 동성애를 두둔하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에 실시한 군대내 성추행 실태 조사에서 조사대상 군인의 15.4%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피해사례를 보면 <항문성교 · 애무강요>가 2.4%, <자위강요>가 0.6%, <성기만짐>이 12.9%, <신체접촉>이 33.5%, <포옹>이 41.2%를 차지하고 있어 군대내에서 동성간에 광범위한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일반 병사가 50만 명이라고 가정하여, 위의 피해자 비율을 적용하면, 동성 군인에게 당하는 <항문성교 · 애무강요 ·

자위 강요·성기 만지기)등의 피해자는 19,500명이며, 동성 군인에게 <신체접촉·포옹>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군인은 57,500명에 달하여 군대내에서 동성간의 성범죄(성적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인권유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군대내 성범죄에 대한 과거 조사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00년 10.5%(정대철 의원), 2002년 9.1%(국가인권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 2004년 15.4%(국가인권위원회)로 현역병의 10% 내외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병사들의 고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군 복무중에 성추행을 보거나 들은 군인의 비율은 2004년 24.7%(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3년 37.6%(한국결핵/한국교회인권회)로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국방부가 징집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동성간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군대내 동성애 조장활동과 국방부의 군대내 성추행 예방교육과 활동의 부실로 이번 동성애자 분대장에 의한 후임병 17명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4. 경악스러운 것은 동성애자 분대장의 성추행 재판후 진선미·김재연 의원들이 발의한 <군대내 동성애 보장>입니다

한국의 동성애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92조6(추행)이 “동성 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침해·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군형법 92조6(추행)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92조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벌하여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입니다.

##### <군형법 92조>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의6(추행),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상)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군인·사관생도·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시 “가해자의 81.7%가 과거 피해자였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신병이 선임병에 의해 동성애적 쾌락에 길들여지면, 합의하의 동성간 성관계로 발전되고, 선임병이 전역한 후에는 후임병이 다시 신병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동성애 관행이 내부만에 은밀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진선미·김재연·김광진 의원의 <군대내 동성애 보장>이 통과된다면, 앞의 17명의 성추행 피해자중에 합의한 5명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없으므로, “군대내에서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를 금지하지 말라”는 법안은 ‘군대내 성추행 가해자의 면책논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어도 처벌하는 것과 달리, 군대내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해 달라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군대내 동성애 보장>을 통과시키면 밤마다 내부만에서 항문성교가 이뤄져도 계급사회에서 후임병이 자율이든 강압이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만 하면 규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일반 남성들이 부대내에서 성욕을 자제하고 지내듯이 동성애자들도 부대내에서 성욕을 자제하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진 인권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성적 욕망과 이기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 5. 군형법 제92조 6 폐지 주장의 본질은 반군(反軍)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1) 동성애자들과 진선미·김재연·김광진 의원들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 군대내에서 인정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군대는 병영내에서의 군인의 성생활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천년 전부터 군인들은 성욕을 규제당하여 왔습니다. 군대의 목적상 군대내에서 성행위 금지하는 보편적인 것인데, 진선미·김재연·김광진 의원들 10명의 의원이 ‘군형법 제92조 6 폐지’를 통해 군대내에서 성행위를 허용하라는 주장은 동성애자들의 이기심이며 반군(反軍)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진선미·김재연·김광진 의원들이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한국군은 군대내에서 이성간의 성행위도 금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만이 군대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2) 동성애자들과 이들 의원들은 군대내에서 ‘이성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다루는 반면, 동성간의 성행위는 군형법으로 다루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여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대내 성행위시 처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동성간의 항문성교도 이성간의 성행위와 동일하게 ‘징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내에서 성관계를 하지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동성애자들과 진선미·김재연·김광진 의원들의 군형법 제92조 6(추행) 폐지 주장의 목적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구현이 아닌, 군대내에서 동성애자들의 성생활 보장이 목적으로서,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드는 반군(反軍)적 성격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 6. 군 형법 제92조 6의 폐지로 발생할 상황들은 심각합니다.

(1) 선임병이 신병에게 동성간의 성행위를 가르치고, 후임병은 성적 쾌락에 길들여지고 난 뒤에, 다시 신병을 대상으로 항문성교등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게이 국가로 압축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군대에 보낸 아들이 게이가 되어 전역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한국인 HIV/에이즈 감염자의 90% 이상이 남자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이성간의 성관계에서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대부분의 남성간의 항문성교를 통해 감염되는 것이 에이즈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염자의 월 치료비는 수백만원이며, 시간이 경과하여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비는 더 증가합니다. 이 모든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기금에서 100% 지출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군대는 모병제로 퇴근 후 이성교 접촉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밤마다 군막사에서 동성애가 이뤄지면 동성애자와 에이즈등의 환자의 급증은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기금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되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 (3) 군대내 문란한 동성애문화로 인해 부모들과 청년들이 징집을 거부하면 한국군은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강요당하게 되어 첨단무기 도입은 중단되고, 북한과 주위 강대국의 군사위협에 시달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4) 군대내 항문성교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면 이성간 성행위를 정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어 한국 군대는 부대내에서 무절제한 성관계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 군기문란으로 군전력화 상실과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성생활 보장이 초래할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가 마음에 드십니까?

7. 군형법 제92조 6(추행)의 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들과 비례대표의 문제점

구 민주노동당		구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연(비례), 이상규(관악 을)	김제남(비례), 박원석(비례) 정진후(비례)	김광진(비례), 진선미(비례), 배재정(비례), 은수미(비례), 장하나(비례)

국가관·의식수준·지적수준이 미달된 사람이라도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들어가 국익에 해를 끼치는 현상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서 반국가행위를 한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구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제의 폐지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발의권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황우여 대표님·김한길 대표님·안철수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들 (02-702-2242)**